



# 아주대학교

## 제4기

#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 통합의 리더십과 인문학이 조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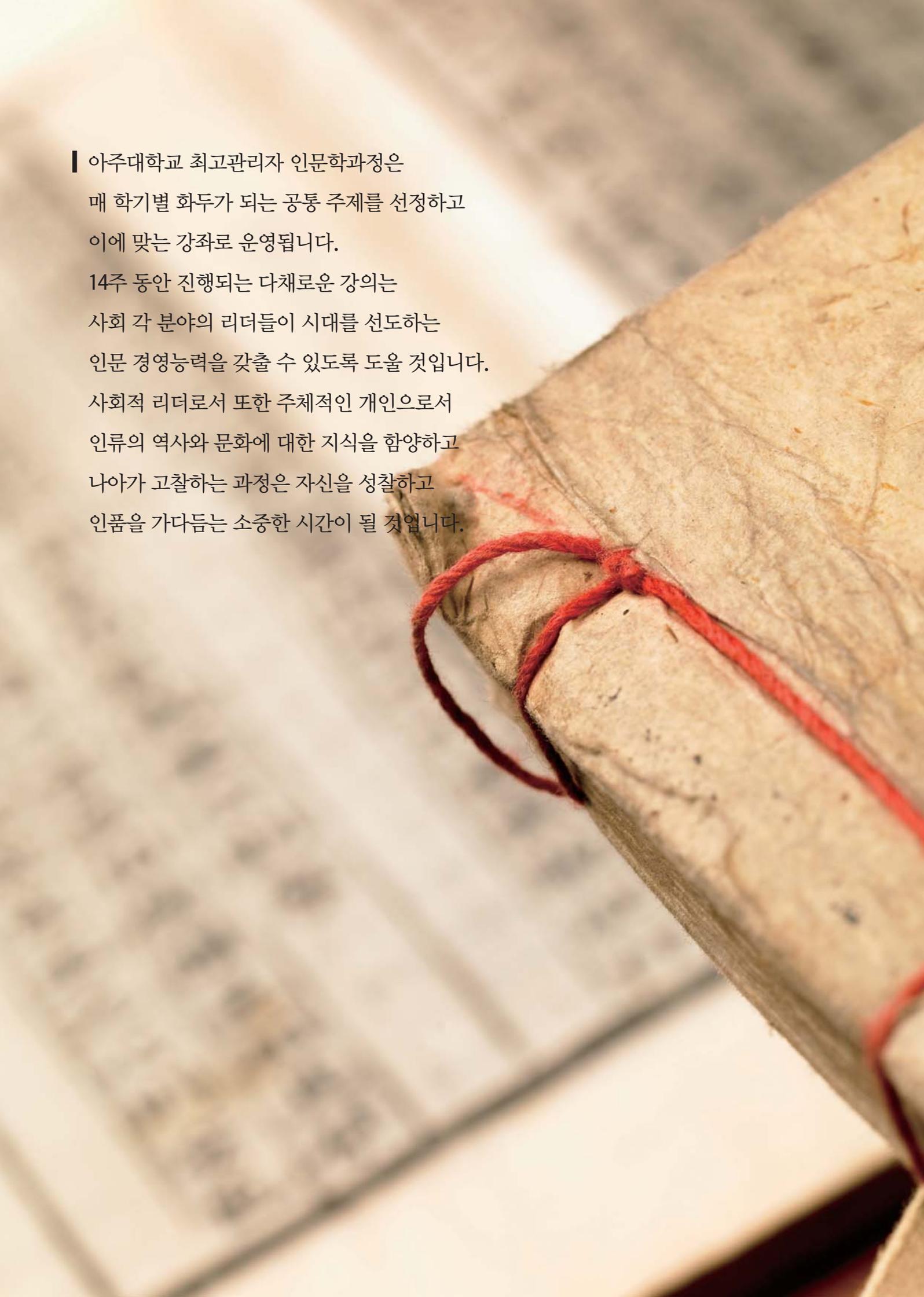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통합의 리더십과 인문학'은 나를 돌아보는 공부이고, 나와 남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분주한 일상사에서 벗어나 그동안 접어두었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함께 향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의 휴식이나 외출이 아닌, 우리가 평생 키워야 할 통합적 리더십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 인문대학  
AJOU UNIVERSITY | College of Humanities

평생교육원

Center for Lifelong Learning



■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은  
매 학기별 화두가 되는 공통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강좌로 운영됩니다.  
14주 동안 진행되는 다채로운 강의는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시대를 선도하는  
인문 경영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회적 리더로서 또한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고찰하는 과정은 자신을 성찰하고  
인품을 가다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통합의 리더십과 인문학’은  
자유로운 사유공간입니다.

이 사유는 나와 너·사회·자연을 포괄합니다.

사유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나타난 통합,

리더십의 주제들을 성찰함으로써

나와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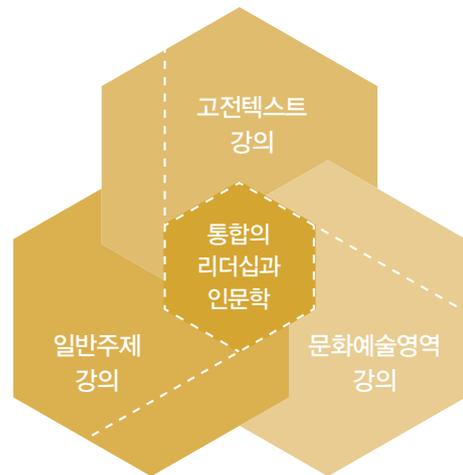
### 공통 테마가 있는 강의

학기별로 당대의 화두를 공통주제로 선정하여 강의를 운영한다. 14주 개별 주제들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함으로써, 강의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고 집중적인 교육효과를 도모한다. 이번 학기 강의의 공통주제는 ‘통합의 리더십과 인문학’으로 인문학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와 현상, 인물들을 리더십과 연관지어 고찰한다.

### 한국의 전통과 지역문화 학습

한국의 전통문화와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는 한국의 보편적 전통과 지역사회의 특수한 전통을 함께 이해하기 위함이다. 전통문화 학습과 체험은 문화기행형식으로 매 학기 진행된다. 이번 학기에는 경북 안동지역을 찾아 한국의 향촌공동체 문화를 경험한다.

### 3개 계열의 다양한 강의 구성



전체 강의는 3개 계열, 즉 인문고전을 읽고 탐구하는 인문학 고전텍스트 강의, 흥미롭고 시의성 있는 특정 테마를 다루는 인문학 일반주제강의, 문화와 예술분야의 감성과 전문지식을 익히는 문화예술영역강의로 적절하게 배분되어 구성된다. 이를 통해 주체적 학습과 테마별 심화교육, 문화적 감성교육의 기회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나를 찾는 고전텍스트 공부

동서양의 대표적 고전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갖는다. 고전을 직접 읽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고전의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고 논의한다. 인류의 보편적 지혜가 담긴 고전을 학습함으로써 주체적이고 반성적인 인문학 공부를 실천한다.

### 인문 경영능력 함양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은 인간과 문화에 대한 원천 지식을 함양하고 개인과 인간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인간적 감성과 창의적 상상력을 고취하며 사회적 리더로서의 품격과 역량을 고양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성찰과 자기계발의 기회까지 주어지는 과정을 통해 모든 수강생들은 최고관리자가 갖춰야 할 인문경영능력을 갖추게 된다.

## | 인문학과 소통하는 사회적 리더들을 초대합니다



인문학아카데미  
원장 조 광 순

최근에 사람들은 인문학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문학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실용주의와 상업주의가 우세한 현대 사회에서 등한시 했던 인문학의 존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반문하게 됩니다. 저는 인문학을 행복에 대한 성찰이라고 조심스럽게 정의합니다. 인문학의 주종을 이루는 문학, 사학, 철학 등의 학문은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이루는 사회란 무엇인가, 인간과 자연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여 왔고 이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제시해 왔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우리의 개인 생활이 아무리 분주하고 사회가 복잡하더라도 언젠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은 다양한 각도에서 행복에 대한 성찰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친

강의에서 창조적 인간, 실천적 인간, 혁신적 인간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행복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2015년도 가을에는 관심을 개인에서부터 사회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의 주제는 「통합의 리더십과 인문학」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팽배한 사회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방법과 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합의 리더십에 대한 강의 외에도 3기까지 계속되었던 고전 읽기와 문화·예술에 대한 감상이 계속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군주론』, 『꾸란』, 『삼국유사』를 읽음으로써 고전의 진수를 감상하게 됩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감수성과 상상력을 높이게 됩니다. 2015년도 가을에 펼쳐지는 또 다른 행복에 대한 성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통합의 리더십과 인문학

강좌	날짜	구분	강의주제	강사
제1강	9/7(월)		입학식	
		일반	통합의 리더십: 무엇을 접근하고 무엇을 회피할 것인가?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제2강	9/14(월)	고전	고전으로 읽는 통합1: <삼국유사>	신종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한국사학전공 교수)
제3강 (합동강의)	9/21(월)	일반	우리 세대의 풍경, 갈등, 통합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제4강	10/5(월)	일반	유럽의 다문화주의	박단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사학전공 교수)
제5강	10/12(월)	고전	고전으로 읽는 통합2: <꾸란>	이주화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이맘)
제6강	10/17(토)~ 10/18(일)	문화기행	[문화기행] 안동	김건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제7강	10/26(월)	일반	종교 간의 갈등과 창조	김재영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종교학전공 교수)
제8강 (합동강의)	11/2(월)	일반	광해군 리더십의 빛과 그림자	한명기 (명지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9강	11/9(월)	문화·예술	Cinematic Storytelling: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 羅生門>	장우진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제10강	11/16(월)	고전	고전으로 읽는 통합3: <군주론>	최장집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제11강	11/23(월)	일반	한국의 다문화와 사회통합	유진이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제12강	11/30(월)	일반	화해와 통합의 리더: 마하트마 간디	조길태 (아주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제13강	12/7(월)	문화·예술	불멸의 천재는 어떻게 탄생하나?	조성관 (<주간조선> 편집위원)
제14강	12/14(월)	일반	성공한 리더십과 실패한 리더십: 셰익스피어의 헨리5세와 리어왕	조광순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12/21(월)		수료식	

## 제1강

## 통합의 리더십: 무엇을 접근하고 무엇을 회피할 것인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기술인가? 아니면 지식인가? 인간을 이끌고 또 따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심리학 연구들의 결론은 한결같다. 나의 욕망과 상대방의 욕망을 조율하는 것 그것이 리더십이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결국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 접근과 회피. 이 두 욕망에 적합한 일, 공간, 시간, 그리고 자아가 각각 따로 있다는 것을 현대 심리학은 최근에 이르러서 밝혀낸다. 접근과 회피의 욕망을 이해함으로써 이 모든 요인들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풀어본다.



김경일(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텍사스대학교 문학박사
- 현 한국인지과학회 총무이사, 전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회장
- 연구 분야: 추론, 판단 및 의사결정, 창의성
- 저서: 『지혜의 심리학』
- 역서: 『혁신의 도구』

## 제2강

## 고전으로 읽는 통합1: &lt;삼국유사&gt;

고려후기 일연과 그 시대를 개관하여 <삼국유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논한다. 그것은 몽골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내세워 민족의 통합을 은연중 호소한 거사(擧事)였다. <삼국유사>의 체제와 내용을 개관하고, 각 편마다 하이라이트가 되는 조(條)를 맞보기로 소개한다. 단군신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옥면’이라는 계집종(婢)의 순교설화에서 과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교훈이며, 꾸며낸 이야기는 어디까지인가를 논증해 보인다. 백제 ‘무왕’조를 통해 1)사실 2)설화 -역사기록 3)유물/유적 사이의 흥미진진한 관계를 보여준다.



신종원(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한국사학전공 교수)

-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 전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 연구 분야: 한국 고대사 불교 사상, 『삼국사기』·『삼국유사』 고전 연구
- 저서: 『신라초기불교사 연구』,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삼국유사 새로 읽기 1, 2』

## 제3강

## 우리 세대의 풍경, 갈등, 통합

특정 시대에 태어나 특정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코호트(cohort) 특성을 지닌다. 전후 세대, 68 세대, 4.19 세대, 386 세대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세대 개념은 바로 이러한 코호트 공통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다. 한 사회에는 다양한 코호트 경험을 지닌 여러 세대가 공존한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코호트 경험을 지닌 세대 사이에는 세계관과 생활양식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합하는 첫 번째 길은 서로 다른 코호트 경험에 대한 이해이다. 이 강의에서는 한국에 존재하는 세대 갈등을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해 볼 것이다.



노명우(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베를린자유대학교 사회학박사
- 연구 분야: 문화이론, 예술사회학, 사회학이론, 미디어연구
- 저서: 『계몽의 변증법을 넘어서 - 아도르노와 신베르크』, 『계몽의 변증법 - 야만으로 후퇴하는 현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노동의 이유를 묻다』, 『텔레비전, 또 하나의 가족』 등

## 제4강 유럽의 다문화주의

탈냉전 이후 문명의 충돌, 이주, 이슬람, 종교, 다문화주의 등이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유럽 사회는 무슬림이민자들과의 사회문화적 갈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들을 유럽 사회로 끌어안으려는 다양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주의가 이들 통합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본 강좌에서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류 사회와 무슬림이민자 사이의 갈등을 역사적 맥락 하에서 설명하고 유럽 각국의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해 본다. 이미 외국인 170만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이기에, 이 주제는 우리 사회와 전혀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다.



박 단(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사학전공 교수)

- 파리 1대학 역사학박사
- 국제역사학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민인종연구회 회장
- 연구 분야: 유럽현대사, 유럽통합사, 이주의 역사
- 저서: 『프랑스의 문화전쟁-공화국과 이슬람』, 『현대서양사회와 이주민-갈등과 통합 사이에서』,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2014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 제5강 고전으로 읽는 통합2: <꾸란>

1400년 이슬람 역사를 통해서 비춰진 <꾸란>은 ‘한 손엔 칼 한 손엔 <꾸란>’으로 요약될 수 있을 만큼 그 역할이 돋보인다. <꾸란>은 오늘날 17억 신도를 둔 세계적인 종교로 거침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본 강의는 다섯 가지 실천의식과 여섯 가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꾸란>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실천을 위해 지켜야 할 규범과 금기(할랄과 하람) 그리고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 강의를 통해서 <꾸란>이 제시된 시대적 배경과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 속에 담겨진 참뜻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주화(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이맘)

- 메디나국립이슬람대학교(사우디아라비아) 신학박사,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박사 수료
- 전 한국이슬람교 중앙회 사무총장
- 연구 분야: 이슬람사, 꾸란
- 저서: 『청소년을 위한 이슬람과 꾸란』, 『종교 부를 허하다』 (공저) 등

## 제6강 문화기행(경북 안동지역)

경상도 안동 일대에는 조선시대 양반관련 문화가 잘 남아있다. 조선후기 농촌 사회에는 성리학적 소양을 쌓은 양반 지식인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재산이 넉넉한 지주도 있었으며, 살림살이가 어려워 일족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빈한한 서생도 있었다. 이같이 양반들은 경제적 처지가 서로 달랐지만 서원과 종가에 함께 모여 넓게는 국가와 향촌사회, 좁게는 문중과 집안의 통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기행에서는 도산서원, 병산서원, 안동 천전[내안] 의성김씨 종택 등을 방문하여 조선시대 양반의 고민과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김건태(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문학박사
- 연구 분야: 조선시대 사회경제사
- 논문: 『19세기 어느 성리학자의 家作과 그 지향 - 金興洛家 사례』, 『19세기 농민경영의 추이와 지향』
- 『Tracking Individuals and Households: Longitudinal Features of Danseong Household Register Data』 등
- 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구원
- 저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등

## 제7강 종교 간의 갈등과 창조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역과 시대를 불문하고 종교가 개인과 집단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 종교는 인간이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인간은 종교전통을 탄생시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의 종교전통을 개혁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종교전통을 전혀 다른 전통으로 대체하여 왔다. 이 과정 가운데 많은 갈등과 충돌, 순교와 배반이 나타난다. 현재도 모든 종교 가운데서 갈등과 창조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종교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재영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종교학전공 교수)

- 오타와대학교 종교학박사
- 한국 종교학회 회장
- 연구 분야: 종교학 이론 및 종교철학
- 저서: 『종교다원주의 종교윤리』(공저), 『종교철학』(공저), 『Education and Kyoto School of Philosophy: Pedagogy for Human Transformation』(공저), 『Faith in Civil Society: Religious Actors as Drivers of Change』(공저)
- 역서: 『현대 종교학 담론』(공역),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죽음의 부정』

## 제8강 광해군 리더십의 빛과 그림자

17세기 초반은 격동기였다. 조선은 안으로는 임진왜란이 남긴 참혹한 후유증에, 밖으로는 명청교체(明清交替)라는 또 다른 국제질서의 격동에 직면해 있었다. 이 때 조선에 이끌었던 군주가 바로 광해군이다. 그는 안팎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했으나 결국 인조반정을 만나 폐위되고 만다. 명청교체 시기 외교에서 역량과 수완을 발휘했던 그가 폐위되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나아가 그는 현군인가? 폭군인가? 본 강의는 ‘문제적 군주’ 광해군의 리더십을 돌아보면서 역시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는 오늘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한명기(명지대학교 사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 전 제2기 韓日歷史 共同研究委員會 한국 측 위원, 동북아 역사재단 자문위원
- 연구 분야: 조선시대 대외관계사
- 저서: 『역사평설 병자호란』,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광해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 수상 경력: 제25회 월봉저작상(2000), 제54회 한국출판문화상(2014)

## 제9강 Cinematic Storytelling :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 羅生門>

이 강의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대표작인 <라쇼몽> 사례를 통해 Cinematic Storytelling이란 어떤 것인가를 다룬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일본영화의 거장으로 칭송받았던 인물이며, <라쇼몽>은 그의 존재를 서구에 각인시켰던 작품이다. 이 강의에서는 원작소설이었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작은 숲 속에서>와 리메이크 작이었던 <The Outrage> 등과의 비교를 통해, 이 영화가 보여준 Cinematic Storytelling의 매력을 이야기해 본다.



장우진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 한양대학교 영화학박사
- (사)한국영화학회 편집이사
- 연구분야: 영화이론, 영화서사학, 한국영화사
- 저서: 『시네마텔링의 다양한 풍경』(공저) 등

## 제10강

## 고전으로 읽는 통합3: &lt;군주론&gt;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정치철학 내지 정치이론의 역사에 있어 몇 안 되는 중요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러 많은 해석, 접근과 이해방식이 가능하다. 본 강의에서는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정치의 성격과 본질에 대해 말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발현되는 정치인과 리더십이 어떻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또는 없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본 강의는 두 가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하나는 정치를 통해 이상주의적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해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텍스트를 읽으면서 정치의 현실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강조한다. 다른 하나는 정치를 도덕주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그 허구성을 드러내도록 한다.



## 최장집(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시카고대학교 정치학박사
- 전 대통령 자문정책 기획위원회 위원장(김대중정부), 전 한일공동연구포럼 한국 대표, 전 미국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위원
- 연구 분야: 비교정치, 정치사회학, 정치철학과 민주주의이론
- 저서: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어떤 민주주의인가』,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 편역서: 『마키아벨리- 군주론』,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

## 제11강

## 한국의 다문화와 사회통합

다문화사회는 서로 다른 문화의 이해와 존중, 노력을 통하여 형성된다. 다문화사회에서는 각기 다른 인종과 성, 언어, 계층 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본으로 의사소통하는 지식, 태도, 기술능력이 필요하며, 문화적 차이를 활용해서 창조적 혁신 및 시너지를 이끌어 내고 동시에 갈등을 건설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문화적 역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강의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사회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적 역량의 필요성 및 개념과 요소, 다문화교육에 대해 강의한다.



## 유진이(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 이스턴미시건대학교 교육학박사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이사장
- 연구 분야: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저서: 『청소년심리 및 상담』, 『인간과 환경』, 『청소년문화론』, 『세계화와 글로벌 리더십』 등

## 제12강

## 화해와 통합의 리더 : 마하트마 간디

간디의 투쟁방법은 사티아그라하라고 불리는 비폭력주의였다. 그는 비폭력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비협조 운동과 시민불복종 운동을 채택하였다. 간디의 지도력 하에 인도는 독립을 쟁취하였다. 아울러 간디는 힌두와 무슬림의 화해와 하층민을 포함하는 국민통합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간디의 화해와 통합을 외면한 통일 인도아대륙은 인도·파키스탄으로 분립 되는 비극을 맞게 된다.



## 조길태(아주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 전 아주대학교 인문대학장, 전 영국 Cambridge대학교 연구교수
- 연구 분야: 세계독립운동사, 인도사
- 저서: 『인도사』, 『인도민족주의운동사』, 『영국의 인도 통치정책』, 『인도와 파키스탄—그 대립의 역사』 등

## 제13강 불멸의 천재는 어떻게 탄생하나?

인류의 정신문명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천재들의 삶을 도시공간과 연결시켜 생애를 탐구한다. 천재는 그냥 탄생하지 않는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성을 타고난 사람도 천재를 키우는 도시로 와야만 비로소 천재로 꽃필 수 있다. 그 도시는 바로 중앙집권적 국제도시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국제도시에서 섞이고 서로 자극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천재성은 활짝 꽃핀다. 불멸의 천재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에서 스스로를 융합하는 인간형이다. 그 결과 천재들은 과거에 없던 세계를 만들어낸다.



### 조성관(<주간조선> 편집위원)

- 성균관대학교 언론학석사
- 전 토론토 특파원
- 저서: 『빈이 사랑한 천재들』, 『프라하가 사랑한 천재들』, 『런던이 사랑한 천재들』, 『뉴욕이 사랑한 천재들』, 『페테르부르크가 사랑한 천재들』
- 수상 경력: 체코정부 공훈메달(2010)

## 제14강 성공한 리더십과 실패한 리더십: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와 리어왕

셰익스피어는 인간사의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었다. 리더십은 그가 비극과 사극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셰익스피어는 왕의 권한, 왕의 자질과 같은 문제들을 조명하면서 현실정치에 있어서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헨리 5세는 성공한 리더요 리어왕은 실패한 리더이다. 헨리 5세는 국론을 통합하여 세계전사에 빛나는 아쟁쿠르 전투를 승리로 이끄나 리어왕은 나라가 분열되는 단초를 제시한다. 이 강의에서는 인간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이 두 지도자의 리더십을 분석함으로써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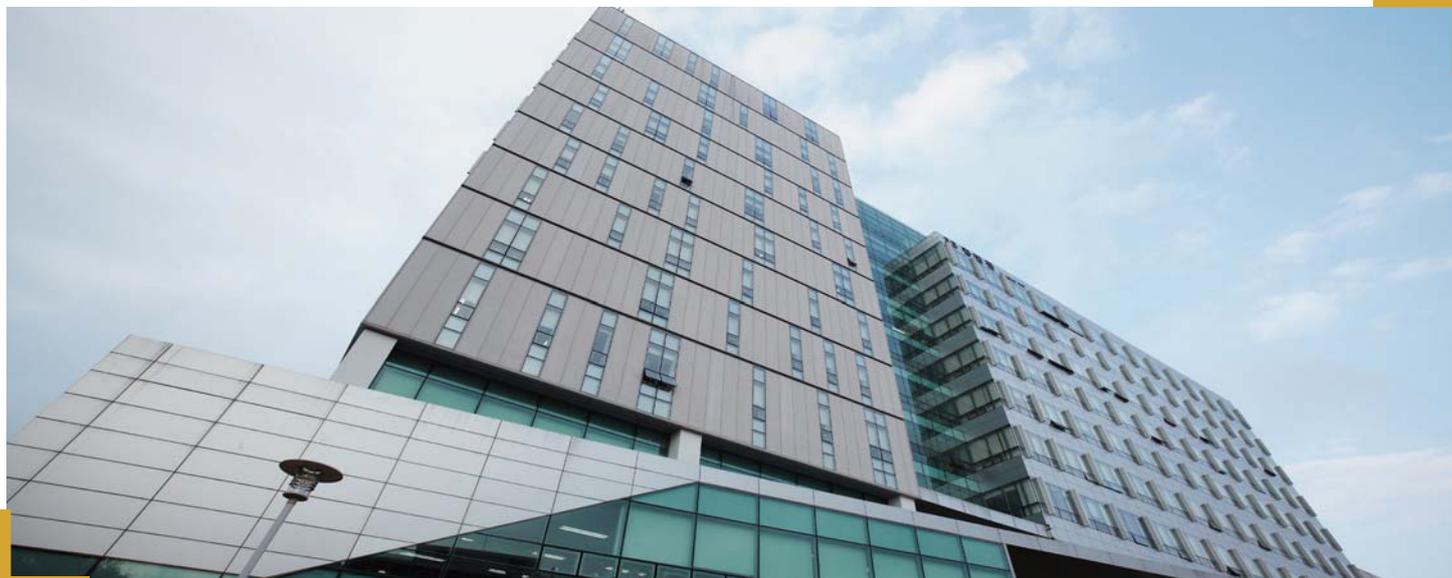


### 조광순(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 미시간주립대학교 영문학박사
- 전 한국고전르네상스 영문학회 회장
- 연구 분야: 르네상스 영문학, 미술과 문학과의 관계
- 저서: 『Emblems in Shakespeare's Last Plays』
- 역서: 『오셀로』



<b>교육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간 : 2015년 9월 7일(월) ~ 12월 21일(월)</li> <li>• 강의장소 : 아주대학교 종합관 1003호</li> <li>• 강의일 : 매주 월요일(14주 강의) ※ 문화기행 : 10월 17일(토) ~ 10월 18일(일), 1박2일</li> <li>• 강의시간 : 19:00 ~ 22:00(3시간)</li> <li>• 주차는 교내 주차장 이용(무료주차)</li> </ul>
<b>모집인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명</li> </ul>
<b>지원자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벤처 기업인</li> <li>• 행정, 입법, 사법부 등 정부 인사 및 책임자</li> <li>• 금융, 문화예술, 법조, 언론, 의료, 체육 등 전문직 종사자</li> <li>•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사. 전/현직 모두 지원 가능</li> </ul>
<b>수강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액 : 3,000,000원(교재 및 문화기행 경비 포함)</li> <li>• 입금계좌 :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632-15-000986(예금주: 아주대학교)</li> </ul>
<b>장학혜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단체에서 3인 이상 등록 시 수강료 10% 감면</li> </ul>
<b>원서교부 및 접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6월 22일(월) ~ 8월 28일(금)</li> </ul>
<b>제출서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명함판 사진(4x5 size, 컬러사진) 1매</li> </ul>
<b>접수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접수 :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li> <li>• 방문접수 :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캠퍼스플라자 301호)</li> <li>• 인터넷접수 : 지원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원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limkh227@ajou.ac.kr) 발송 ※ 홈페이지(<a href="http://cll.ajou.ac.kr">http://cll.ajou.ac.kr</a>) 접속→게시판(공지사항)→입학지원서 다운로드 (첨부 서류는 우편발송)</li> </ul>
<b>합격자 발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통보</li> </ul>
<b>문의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 : 031-219-1565, 3583</li> <li>• 홈페이지 : <a href="http://cll.ajou.ac.kr">http://cll.ajou.ac.kr</a> / 팩스: 031-219-1566</li> </ul>





**아주대학교** | **인문대학** | **평생교육원**  
 AJOU UNIVERSITY | College of Humanities | Center for Lifelong Learning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 031-219-1565, 3583 f. 031-219-1566